

社會淨化運動의 理念과 方向(제 5 회)

大韓齒科醫師協會 淨化推進委員會

3. 創 造

우리는 앞에서 正直을 기반으로 한 信賴하는 社會와 秩序를 바탕으로한 調和로운 社會의 要件에 관하여 살펴 보았다. 正直의 理念과 秩序의 理念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여러가지 肯定的인 가치 가운데 하나이다. 이와 동시에 이 두 이념은 社會發展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며 社會의 발전과정을 설명해 주는 중요한 가치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왜 정직과 질서를 제시하고 있는가? 그것은 어떤 理想을 前提로 하며 어떤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設定된 가치이다. 다시 말하면, 개인적으로는 自我實現을 위한 가치로서 社會적으로는 社會正義를 실현시킬 수 있는 가장 有用한 가치로서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같은 公同의 必要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共通分母와 같은 가치로서 정직과 질서의 중요성을 認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에게는 良心的 行動이 요구되었고, 社會에는 公정한 규범과 제도가 요구되었으며, 국가는 正當性을 具現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秩序를 維持하기 위해서는 社會를 構成하는 諸要素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하고 하여야 할 것을 實行하며 맺어야 할 것을 맺어야 한다는 個別的인 特性을 지니면서도 분명히 相互有機的인 關係가 요구되었다. 뿐만 아니라 正直과 秩序라는 두 이념의 실현은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개인, 社會, 그리고 국가의 바람직한 發展의 터전을 굳건히 확립해 나가자는데 있으며 바로 여기에 創造의 理念과 만나는 것이다.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 볼 때, 朝鮮社會의 史만을 再照明해 보더라도 創造의 理念이 왜 절실한 것으로 요청되는지 이해할 수 있다. 즉, 李朝는 民本的 德治主義를 기본적인 이념으로 내세워 역사를 펼쳤지만 차차 형식에 얽매어 드디어는 참 정신은 말

살될 정도로 硬直되어 버렸다. 그 결과, 새로운 역사적 요청에 알맞게 대응할 活力을 잃어버리고 정체되어 결국 쇠퇴하고 말았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역사적 교훈을 거울삼아 건전한 批判精神과 進取的인 國民意識을 함양하고 創意가 마음껏 발휘되어 신선한 活力으로 충만한 社會를 지향하기 위한 노력이 요청되는 것이다. 더우기 오늘날 급변하는 國際環境속에서 볼 때 우리 나라의 빈약한 資源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서 先進各國과 어깨를 겨루고 경쟁해 나가는데 부담을 주고 있다. 따라서 創造의 정신은 이와같은 惡條件下에서 우리민족의 앞날을 개척하는 등불이자 길잡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創造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질서의 基盤위에서 출발하여 우리 民族의 時代史的 要求에 의해 자주적으로 성숙된 새로운 秩序로 옮겨가는 것을 말한다. 이를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첫째, 秩序의 基盤이란 질서로부터 나올 수 있는 힘을 말한다. 즉 개인의 양심적 행동과 公正한 社會體系와 正當性을 가진 國家體系가 有機的으로 결합되어 축적된 잠재적인 힘을 말한다. 질서가 없으면 혼란이 야기되고 혼란은 힘을 分散시킬 뿐이다. 그러므로 創造의 힘은 질서의 기반위에서 비로소 움트는 것이다.

둘째, 우리 民族의 時代的 要請이란 바로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복지사회를 實現하는 것이다. 우리 民族의 정치적 전통과 우리 國民의 정치적 경험을 기반으로 국민이 모든 것에 우선하는 政治를 실현하며, 국민이 우선하되 社會의 富가 公正하게 分配되는 福祉社會를 실현하며, 정직하고 성실한 者가 올바르게 대우받고 잘 살 수 있는 正義社會를 구현하는 것이 2000年代을 향한 우리민족의 역사적 요청인 것이다.

제 4장 社會淨化教育의 方向

앞에서 社會淨化運動의 3대수단을 언급한 바 있지만 이 運動이 궁극적으로 國民精神改革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教育이 중요하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社會淨化運動의 成敗는 교육혁신 여부에 달려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교육혁신이란 쉬운 일이 아니고 오랜 기간에 걸쳐 국가적 차원에서 범국민적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장에서는 지난날 우리 教育이 왜 건전한 國民精神 함양에 실패하였으며 또한 國民精神 형성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주는 教育外的 環境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 社會淨化的 次元에서 어떻게 教育革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고찰하기로 한다.

어느 국가에 있어서나 그 국가가 새로운 發展을 모색하는 轉換點에서 教育革新을 시도하려는 것은 당연한 論理이며 그러한 革新을 이룩한 국가는 그 國家發展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독일이 나폴레옹 군대에게 점령당했을 당시 교육철학자 피히테(Fichte)는 독일 국민의 精神的 墮落과 道德的 腐敗를 개탄하면서 “국도로 피폐된 이기주의적 국민정신과 쇠퇴의 절정에 이른 道德秩序를 일소하고 祖國을 누란의 위기에서 구하는 길은 오로지 國民教育을 근본적으로 改革하여 새로운 倫理觀의 확립과 道德的 革新을 이룩하는 것이 독일을 구하는 길이다”라고 絶對하였다. 이렇게하여 이룩된 教育革新이 독일을 근대세계의 強大國으로 받돋움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덴마크가 敗戰으로 절망 속에 헤매고 있을 때 그룬트비히에 의한 教育改革과 社會刷新은 오늘의 先進福祉國家 건설의 기틀이 되었다.

덴마크가 국가적 시련기에 있을 때 그룬트비히는 국민대중의 무지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國民高等學校와 夜間學校를 설립하여 학술적이 아니라 국민의 實生活와 직결되는 내용을 생활지식으로 교육하고 국민들 스스로의 위치와 생활조건을 이해 시키고자 애썼다. 國民高等學校는 주로 농촌 중심으로 농부들이 소유하고 그들에 의해 운영되었으며 덴마크어와 문학, 역사, 공민, 수학, 과학, 외국어, 종교, 시사문제 등을 알기 쉽게 풀이하여 가르쳤다. 또한 夜間學校는 도시의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成人教育으로 정치, 문학, 종교, 철학, 예술

등 문화적·사회적교육, 一般學校에서 가르치는 어학, 수학 등의 교육, 목공, 재봉 등의 手工學과 그리고 농업, 정원가꾸기 등과 같이 技術學校에서 가르치지 않는 과목들을 가르쳤다. 이렇듯 덴마크는 각종 지식을 습득케하는 成人教育을 통해 국민의 지적 수준을 전체적으로 높이고 국민의 정신적 성숙을 추구함으로써 文化市民으로서의 근본자질을 함양케 했던 것이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온갖 정신적 사회적 병폐를 일소하고 새로운 民族發展을 위하여 매진하려는 이때 무엇보다도 教育革新을 위한 汎國民的인 노력이 요청되고 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教育이란 좁은 의미의 學校教育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人格形成에 영향을 주는 모든 要素를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教育이다. 人間의 性格形成을 연구하는 社會化(socialization) 理論에 의하면 한 사람의 됴됨이는 어릴 때부터 成年이 되기까지 영향을 주는 가정, 학교, 종교집단, 동료, 대중매체, 직장 그리고 일반적인 社會雰圍氣에 의해 決定된다고 한다. 따라서 훌륭한 人間이 된다는 것은 그 모든 要素들로부터 올바르게 影響을 받아야 하며 그중 한 두가지 영향요소가 나쁜 방향으로 유도할 때, 건전한 人間을 길러내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일반 國民의 바람직하지 못한 意識構造는 學校 또는 教育者 뿐만 아니라 가정, 종교집단, 대중매체, 그리고 社會의 共同的인 책임인 것이다.

社會淨化運動에서 보다 큰 관심을 갖는 教育을 學校外的 教育 또는 일반적으로 社會教育과 社會의 教育環境이라고 볼 수 있다. 學校教育을 통하여 어느정도 教育革新을 이룩할 수 있으나 문제는 가정이나 社會가 오염된 분위기를 지속할 때 학교교육을 통한 精神改革은 이룩되기 어려운 것이다. 또한 학교교육은 既成世代의 意識構造를 개혁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社會淨化運動은 既成世代의 再社會化(resocialization) 노력을 통해서 잘못되었거나 전근대적인 의식구조를 바로잡는데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教育革新을 위한 새로운 方向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난날의 教育과 教育環境에 대한 개략적인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로 우리 教育이 통일된 理念과 그에 따른 百年大計로서의 장기적인 計劃이 비교적 미흡하였다고 본다. 물론 해방이래 온갖 國家社會의 試練과 급

격한 社會變動에 대하여 우리의 교육이 적절하게 적응하기란 어려운 상황이었다. 국가의 目標가 民主化, 産業化, 近代化, 勝共을 지향하면서도 教育理念은 傳統的 要素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온 것이 사실이다. 각급 學校教育 뿐만 아니라 公務員教育, 軍政訓教育, 統一研修教育, 職場教育, 새마을教育 등 국민정신 형성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교육들이 정부의 통일된 教育理念 아래 수렴되지 못하였으며 상호 유기적인 關聯性도 미흡하였다고 본다.

또한 교육은 國家發展의 최우선적 과제로 역사적 안목에서 다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일한 教育政策도 없지 않았으며 현실적 필요에 급급하여 임기응변적인 제도개혁이나 물질위주의 成長政策에 밀려나 教育投資를 소홀히 할 수 밖에 없었다. 물론 교육의 成果란 長期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한 정된 國家資源으로 교육을 위해 풍족한 投資를 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大衆教育의 시대가 도래하여 教育人口는 폭발적으로 증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質의 成長이 따르지 못한 量의 팽창만을 계속해 온 것이다.

이로 인하여 教育施設의 절대부족에서 오는 과밀 학급 사태 그리고 교사의 과중한 業務負擔, 교사의 낮은 處遇 등과 같은 문제점을 가져왔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입학만하면 卒業이 보장되는 대학교육제도, 그로인한 지나친 入試競爭과 과열과의 그리고 매년 수십만명씩 누증되고 있는 재수생문제 등은 국민의 教育에 대한 不信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커다란 社會問題가 아닐 수 없었다. 지난날 우리의 교육은 유교적 가치만을 강조하던 李朝教育에서 물려받은 保守主義와 日帝식민지 교육의 잔재인 자기 문화에 대한 열등의식과 관료주의 그리고 해방이 서구문화 도입으로 말미암은 目的第一主義, 機能主義, 拜金主義의 價値觀 등으로부터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아왔다. 따라서 그간의 우리나라 교육은 관료주의적 통제의 강화와 획일적 形式主義 및 業績主義의 만연 등으로 교육의 自律性과 創意性이 보장되지 못하였다. 主體性을 상실한 획일적인 教育內容과 집단적인 教育方法이 계속되어온 결과, 우리의 學校教育에서는 理想志向의 이기 보다는 현실적응 위주의 생활태도 그리고 手段의 윤리성을 무시하는 目的第一主義를 원칙으로 살아가는 풍토가 조성되었다.

뿐만 아니라 교육의 급격한 양적 팽창은 자연히 교육의 外國化 현상을 초래하였다. 외국의 教育內

容과 方法이 우리의 현실에 맞게 창조적으로 발전되지 못하고 그대로 활용되었을 뿐 아니라 서구의 科學主義와 物質爲主의 가치관을 맹신하고 그들의 文化를 추종 모방하는 文化的 隸屬意識을 조장하는 잘못이 없지 않았다. 그 결과 民主社會에서 필요한 건전한 인격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바탕으로한 協同, 團結보다는 지나친 경쟁의식에 사로잡혀 출세 하고 보자는 理想도 낭만도 없는 젊은 세대를 量産하기에 이르렀다.

앞에서도 지적하였지만 잘못된 國民精神과 사회적 非理에 대한 책임이 學校를 중심으로한 좁은 의미의 교육계에 있는 것만은 아니다. 우리의 歷史的, 社會的 現實이 곧 교육의 광장이고 우리의 삶과 문화가 곧 교육의 內容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학교에 보냄으로써 자녀교육을 위한 父母의 역할을 다한 것으로 생각한다면가 宗教集團이나 社會團體가 지역내의 청소년 善導와 教育에 대해서 별 관심을 나타내지 않고 있는 점등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現代社會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그리고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등 각종 대중매체들의 教育的 役割을 보다 크게 인식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 각종 大衆媒體가 상업주의에 빠져 大衆들의 인기에 영합함으로써 지속성과 퇴폐성이 國民精神에 미치는 害毒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대중매체의 영향 못지않게 중요한 非教育的 要因으로 들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앞에서 강조한 바 있는 기성세대의 非倫理性이다. 지난날 날이면 날마다 신문지상을 메운 어른들의 豪華奢侈, 無節制, 不正行爲, 타락行爲와 불량상품의 범람 등 그릇된 사회상은 청소년들의 마음속에 不信과 懷疑를 심어 줄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을 몰들게 한다. 청소년들 주변에서 어른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크고 작은 非行들이 청소년에게 끼치는 影響은 절대적인 것이다.

80년 7월말이래 단행된 教育改革과 전반적인 社會刷新은 教育革新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본다. 이제 學校 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 각층에서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나고 있는 社會淨化運動은 學校教育과 각종 社會教育의 획기적인 革新을 통하여 國民意識革命을 기필코 이룩하여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는, 國民精神에 직접·간접으로 影響을 주고

있는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신의 책임원수를 위한 철저한 專門知識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져야 하겠다. 이런 분야의 범주는 대단히 넓으나 각급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教育者, 宗教人, 言論人 그리고 文化藝術 分野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役割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재인식하는 것이 절실하다. 그리고 이들을 위한 研修教育에서는 精神教育이 실질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知識人이 社會淨化運動의 선도역할을 맡아야 할 必要가 있는 것이다. 특히 과중한 업무와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 때문에 사기가 떨어진 教師들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교사자신들도 새로운 세대를 올바르게 育成하는데 모자람이 없는 人格 修養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教育과 文化에 있어서 主體性을 확립해야 하겠다. 主體性이란 그것을 강조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주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社會의 歷史, 文化, 政治, 經濟 등 현실적인 기준과 가치를 근거로 하여야 하며, 教育內容의 기본적인 방향은 民族文化의 傳承發展을 지향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主體的 教育은 먼저 우리나라의 歷史, 文化, 鄉土, 民族에 대한 깊은 애착과 관심을 토대로 할 때 성립될 수 있는 일이다. 또한 대중매체와 대중문화 수단은 외래적인 것의 소개와 모방보다는 현실에 바탕을 둔 우리 문화의 創造的 發展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셋째는, 教育과 文化에서 官僚主義와 획일주의를 지양하고 自律 속에서 民族力의 창조적 발전을 꾀해야 할 것이다. 피교육자의 生活環境과 教育欲求, 教育施設과 教師의 차이 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教育은 內容과 方法, 教育行政 등 교육의 제반시행에 있어서 지나친 획일주의의 병폐가 없지 않았다. 교육은 행정지도기관의 욕구보다도 피교육자의 필요에 맞게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전국을 영향권 내에 포함하고 있는 텔레비전 방송이 권위적인 運營과 다양한 계층의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안이하고 획일적인 프로그램 제작은 갖가지 폐단을 가져온다. 社會淨化運動의 三大理念의 하나인 創造는 획일적이고 형식주의적인 教育文化의 분위기 개선으로 크게 매진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國民精神 改革을 위한 노력은 추상적인 價値觀의 주입이나 암기와 같은 方法이 아니라 生活속에서 익숙해지고 體質化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中心으로 각계 각층이 協同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價値觀은 個人的 삶의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形成되는 것이지 知識이나 技術처럼 訓練으로 주입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教育을 통해서 사람이 즉각적으로 당장 변하리라고 기대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教育의 結果는 몇 년 또는 몇십년 후에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 옳다. 近代 産業 社會에 알맞는 市民教育을 위해서는 社會的 秩序와 規範을 지키고 人間의 존엄성을 알고,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호혜의 精神과 平等原則에 입각한 社會正義를 실현하기 위해서 각자의 맡은 바 책임과 使命을 다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훈련되어야 한다.

이상으로 教育革新을 위한 社會淨化教育의 일반적인 문제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社會淨化運動의 手段으로서 가정교육, 학교교육, 직장교육 그리고 대중매체를 中心으로 하는 社會教育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고찰하기로 한다.

1. 家庭教育

옛부터 教育은 根源은 家庭에 있다고 했다. 특히 嬰幼兒期에 있어서 父母나 家族成員들로부터 받는 指導와 일반적인 家庭 분위기는 개인의 性格形成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최근의 통념은 교육 학교가 전담하는 것이며 가정의 역할은 교육비 부담에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어릴 때 이루어지는 家庭教育의 重要性은 재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人格形成의 요람지인 家庭에서 正直, 秩序, 創造의 바람직한 행동 규범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중요한 일반적인 고려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는 女子의 人格을 尊重해야 한다. 과거 우리 나라의 많은 家庭을 보면 父母가 자식을 낳았다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자녀를 부모의 永속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경향이 컸다고 본다. 자녀를 하나의 獨立된 人格體로서 指導하고 引導한다기 보다 오히려 父母의 말과 行動을 그대로 배우고 따라야 하는 맹목적 추종자로 만들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므로 合理的으로 설득하고 타이르면서 교육시키기 보다 非合理的인 權威로써 指示하고 強要하고 억압함으로써 父母가 필요로 하는 인간으로 만들기를 더욱 원했던 것이다.

그러한 認識은 子女를 참다운 倫理道德的 自覺에 의한 民主的 市民으로 교육하는데 커다란 장애가

되어 왔다. 스스로의 올바른 판단에 맡겨지지 않는 행동양식은 非民主的인 것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개개인의 인격을 중요시하지 않는 家庭教育의 풍토는 社會生活속에서도 個個人의 人格을 존중하지 않는 풍토를 자아내게 할 뿐만 아니라, 公共倫理에 대한 인식부족까지 초래할 것이며 더 나아가 위선적인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없지않는 것이다. 父母의 強權의 主張에 익숙해진 개인의 자신의 판단은 제쳐두고 윗사람의 말에 무조건 맹종하기 쉽다. 결국, 자기 자신의 意思에 관계없이 맹목적으로 따르게 되면 윗사람의 눈치를 봐야하고 또한 거기서 거지된 行動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윗사람들의 意思가 一貫性이 없을 때에는 바른 일, 또는 眞實에 대한 確信을 잃게 된다. 이래도 따르고 저래도 따르는 가운데서 二重性格이 형성되고, 여기서 人間關係는 은연중 不信風潮에 빠지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子女의 人格을 존중하고 스스로의 판단을 중요시하는 풍토속에서만 自主的인 獨立心과 責任意識, 그리고 遵法精神이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자식의 부모에 대한 올바른 孝道精神은 父母의 民主的이고 合理的인 子女愛에 의해서만 기대되어 질 수 있다. 그러므로 上敬下愛도 은혜와 보은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相互尊重의 관계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부모가 출산하여 자녀들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어린이들이 가장 영향을 크게 받는 主體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자기의 부모이다. 그들은 부모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면서 기초적인 社會化的 과정을 밟게 된다. 이때 그들은 부모의 모든 행동을 理論적으로 認識하기에 앞서 盲目的으로 模倣한다. 따라서 부모의 한마디 한마디와 한동작 한동작은 은연중에 어린이들의 말과 행동의 지침이 된다. 물론 부모의 言行에 一貫性이 없을 때, 아이들은 價値判斷의 혼란에 빠지게 마련이며 부모가 不正直하고 無秩序, 無節制한 생활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그러한 분위기에 적응되기 마련이다. 그리고 부모가 아이들에게 正直과 秩序와 節制있는 生活를 요구하게 되면 그것은 심각한 모순을 야기시키는 결과가 된다.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率先垂範이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과 行動으로 직접 목격하고 確認할 수 있는 模範을 항상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

하여 아이들의 밝고 맑고 깨끗한 동심에 항상 正直하고 秩序있는 道德的 價値가 생활하는 중에 자연스럽게 길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子女를 올바르게 키우는데 정열을 기울이는 것은 바로 父母自身의 道德的 價値를 항상 반성하고 발전적인 생활태도를 가지려는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는 感情으로 子女들을 다루려 할 것이 아니라 教育心理, 倫理 및 哲學的인 바탕에서 항상 合理的으로 자녀들을 指導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부모의 合理的 指導 중에는 信賞必罰의 원칙이 분명해야 한다. 특히 아동기에 있어서 잘잘못에 대한 道德的 基準를 학습, 판단하는 기초를 다지게 되므로 올바른 일은 칭찬, 고무하고 그릇된 일은 사랑으로서 이를 질책, 선도함으로써 善惡과 正邪에 대한 올바른 價値觀을 지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기에 있어서는 社會的 寬容과 制裁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스스로의 행동양식을 결정하게 되므로 信賞必罰이 合理的으로 이루어질 때 教育的 効果는 그만큼 증대되는 것이다.

세째, 子女世대에 대한 부모의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모하므로 그러한 세계를 바라보는 눈은 과거와 현재가 항상 一致될 수가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부모는 달라진 세계, 달라진 環境을 주의깊게 理解하여야 하며 달라진 세상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의 意識世界를 그들의 입장에서 항상 再解釋해보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教育者가 被教育者의 심층을 제대로 파악하는 논리와 같다. 부모가 자신의 어린시절의 행동규범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고집하려 한다면 그것은 어린이들에게 몸에 맞지도 않는 옷을 억지로 입히려 하는 이치와 같다.

우리나라의 傳統的인 家庭教育은 주로 父母中心의 教育이었다. 父母中心의 입장에서 자녀는 지도되어졌으며, 자녀들은 언제나 부모 말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 社會적인 美德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家庭教育은 자녀의 個性開發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의사를 전달하고 복종하게 하는 訓示的인 성격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 오히려 그러한 傾向은 創造的이고 進步的이기 보다는 과거를 답습하는 停滯的이고 保守的인 文化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뿐이었다.

그것은 被教育者가 教育者의 비위를 맞추어야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급변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창의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항상 새로운 세대가 살아갈 새로운 환경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알맞는 지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특히, 부모의 미련이나 욕심에만 사로 잡혀 자녀의 진로를 강요하는 것보다는 子女의 個性을 존중하고 能力을 開發토록 하여 특기를 살려줄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네째, 자녀들을 위한 바람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孟子의 教育을 위해 그 어머니가 세 번이나 이사를 했다는 「孟母三遷之教」는 교육환경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하나의 좋은 예가 될 것이다. 교육환경에는 地域의 特性, 身體의 特性과 같은 自然的 環境이 있고, 人間關係, 住居形態, 부모의 職業, 所得, 매스컴 등과 같은 사회적 환경이 있을 수 있다.

앞서 말한 부모의 率先垂範 여부도 어린이에게는 하나의 教育環境이 된다. 부모가 家庭環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자식의 도덕적 각성을 일반적으로 요구하고 指導한다고 하면 教育環境의 중요성을 망각한 子女指導로서 그 효과는 제대로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어린이들의 生活環境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성심성의껏 마련해주고 바람직한 친교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며 텔레비전, 漫畵, 映畵 등에도 교육적 입장에서 선별적으로 접촉하도록 선도함으로써 環境의 要因에서 오는 탈선이나 비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항상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바람직한 教育的 環境을 만들기 위해 부모가 노력하는 것은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한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다섯째, 家庭教育을 學校教育과 긴밀하게 연결시켜 교육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 學校教育은 학생들에게 專門의이며 體系의으로 지식을 습득케 한다는 차원에서 家庭教育과 어느정도 차이를 지니지만 인격을 도야하는 곳이라는 관점에서는 家庭教育의 연장인 동시에 家庭教育과 병행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家庭에서 부모나 형제, 친지들로부터 배운 行動規範과 學校에서 배

우는 행동규범이 상이할 때 靑少年들은 스스로의 價値判斷에 심각한 갈등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學校에서는 학생의 잘못을 꾸짖는데 이들 부모가 學校에 항의하여 자식을 두둔한다거나, 學校에서는 개개인의 人格을 존중하는 내용을 강조하는데 가정에서는 부모가 편애하거나 지나치게 권위적으로 자녀를 다스릴 경우 學校教育과 家庭教育은 서로 갈등되는 행동규범을 한 개인에게 동시에 제공하는 결과가 되어 價値教育의 一貫性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家庭内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르침이 一貫性을 지녀야하고 또 家庭과 學校間에는 부모와 교사의 가르침이 一貫性을 잃지 않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父母들은 學校와 긴밀한 紐帶속에서 교사와 상의하여 자녀를 선도함으로써 자녀들이 올바른 價値觀을 지속적으로 형성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地域淨化運動에 부모가 적극 참여할 뿐 아니라, 이를 자녀에게도 자세하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 사회정화운동은 각계 각층에서 추진되고 있는 범국민적인 社會改革運動이다. 따라서 各 家庭의 부모들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자 지역정화운동의 실질적인 참여자이다. 보다 원만한 이웃관계, 보다 명랑한 지역사회풍토를 이룩하기 위하여 각 마을과 부락들은 地域淨化推進委員會를 구성하고 그 지역사회에 알맞는 여러가지 淨化事業들을 추진할 것이다. 이때 각 가정의 부모들은 지역정화운동에 적극적으로 參與함으로써 바람직한 지역풍토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왜냐하면 가정교육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자녀들에게 지역정화운동의 내용을 소개하고 이러한 운동의 노력에 의해서 조성될 社會의 健全풍토를 이해시킴으로써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바람직한 價値들이 지역사회에서도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것임을 인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곧 자녀들로 하여금 地域 社會에 더욱 애착을 가지고 참여하게 하는 좋은 자극이 될 것이다.

* * * * *